<중국 문화 바로 알기: 문화 코드로 본 중국> 제2강

중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신화와 전설, 역사에서 읽는 중국 문화

백원담(성공회대 교수)

강의 개요;
제 2강에서는 중국의 신화전설에서부터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기록된 바와 같은 문화 중국의 원초적 상을 그려본다. 그것은 중국 인식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강한 편견을 깨는 하나의 방법적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보편으로 군림해온 중국은 황하를 중심으로 방대한 문명국가로서 존립해왔고, 서구의 민족구가 형성과는 다른 화이관계(華夷關係)라는 '문화주의'를 통해 주변과의 관계성을 형성해왔다. 그 화이의 세계상은 천하질서로서 표상되었다. 따라서 이 강의는 중국 천하세계가 형성되고 변화되어 현대에 이르는 과정을 중국에서 '문'의 이해를 통해 접근한다.

주교재) 백원담, <문화와 중국>, 집필 교재
공상철 외,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다락원
웬커/김선자, <중국의 신화전설>, 민음사

1. '문'과 중국

"문의 덕됨은(속성)은 크도다, 그것은 천지와 더불어 생겨났으니, 어째서 그러한가? 천지에는 검은 빛과 누른 빛(玄黃)의 빛깔이 다 다르고, 원형과 방형의 구분이 있고, 해와 달이 중첩된 옥돌처럼 하늘 위에 붙어 있는 형상이며, 산과 강은 금실로 수놓은 듯, 땅 위에 널리 퍼져있는 형상이니, 이것이 대개 대자연의 문장(文章)이라. 위로는 해와 별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아래로는 산하에 문채가 있음을 보며, 위아래의 위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천지가 나은 것이다. 다만 사람과 천지가 서로 짝을 이루어 신령한 성질(靈性)을 품어 길러내니, 사람만이 천지간에 참여하고, 성령이 표현되는 바, 이것을 일러 천지인 삼재라고 한다. 오행의 수려함, 그것은 실은 천지의 마음이라. 마음이 생기면, 말이 따라서 확립되고, 말이 확립되면 문장이 선명해지니, 이것이 천지자연의 도이다."[1)]

중국에서 文은 천지와 함께 태어났다. 문은, 천지가 세상에 그려내는 빛깔과 형상, 소리의 자연적인 이치로서 구현되는 것이므로, 이의 이치를 아는 인간이 그것을 실현해낼 때는 그러한 자연적 이치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명징한 문예미학을 표술한 <문심조룡>은 자연의 무늬(自然之文)와 인간의 문화(人文)을 이처럼 혼일시켰다. 객관적 존재로서의 세상의 빛깔과 형체, 소리를 인간의 주관적 의식의 산물인 문, 혹은 문학과 동일시하는 것은 물론 잘못이다. 인문을 신리(神理)의 작용처럼 신의 이치로 만들어진 선험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객관유심론에 함몰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협의 본래의 의도는 당시의 부화한 문풍, 사회적 현실을 외면한 망종한 사대부들의 작태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그런 점에서 '찬술하되 창작하지 않는다(述而不作)의 유가적 문예관에 입각하여, 봉건통치의 강화를 위한 '명도(明道)'에 있었다고 본다면, 이러한 '문'에 대한 설명은 문장으로 도를 싣고(文

1) 劉勰,《文心調龍, 原道》

以載道), 천인합일의 경지 속에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상도(和)를 구현하여 제국의 자기중심성(中)을 유지·온존해가는 중국적 문화통치의 실증이자, 그것이 현실적 삶에 입각해 자기전개를 해나간다는 점에서 중국적 '문'의 본연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천지의 변화를 읽어내는 방법으로서의 역(易), 그것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易與天地準, 故能彌綸天地之道,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知幽明之故, 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說, 精氣爲物, 游魂爲變, 是故知鬼神之情狀.
是故君子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是以自天祐之, 吉无不利.
變化者進退之象也, 剛柔者晝夜之象也.[2]

곧 文의 주체는 君子, 중국의 사대부들이고, 그들은 천문지리의 변화를 늘 읽으며 세상사에 간여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천지자연의 이치를 천명으로 받으며, 그것의 운행을 법삼아 현실의 사회에 구현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최고지평으로서의 성인정치, 문치(文治)이다. 이에 대하여 장병린은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공자는 요순을 칭찬하여 "빛나도다! 그 문장이여!"라 했다. 군신·조정·존비·귀천에 질서가 있고 수레·의복·궁실·음식·결혼·상제에 구별이 있는 것, 이것이 문이다. 팔풍(八風)이 음률을 따르고 여러 가지 음악에 법도가 있는 것, 그것이 장(章)이다. 따라서 문장이란 예악을 달리 칭한 것이다(孔子稱堯舜 '煥乎其有文章'. 蓋君臣·朝廷·尊卑·貴賤之序, 車輿·衣服·宮室·飮食·嫁娶·喪祭之分, 謂之文; 八風從律, 百度得數, 謂之章; 文章者, 禮樂之殊稱也)[3]

장파(張法)는 그의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中西美學與文化精神)》라는 저서에서 '文'이란 원신인의 문신이고, 노예 사회 군자의 의관 복식이며, 원시 사회 무속의식이고, 노예사회문물이 덕을 드러내는 예제라고 하였다. 문이란 곧 일종의 외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특징을 두가지로 설명한다. 첫 번째는 식(飾, 꾸밈), 수식성이다. 그것은 초기에는 문신으로 일종의 신체장식이었던 것이 발전하여 다양성이 통일된 조화(和)의 사상이 되는데, 그것은 식이 본래 단일한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가지 사물로는 무늬를 이룰 수 없다(物一無文)." 장파는 이를 주역을 들어 설명한다.

(산가지를 던져) 그 변화를 알아보고, 그 수를 교착하기도 하고 종합하기도 한다. 그 변화를 통달하여 천하의 문을 이루는 것이다. 參伍以變, 錯綜其數, 通其變而成天下之文[4]

여기서 단일한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교착, 종합해가는 변화, 그 통달로서의 문, 문화라는 설명이 중요한데, 장파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착과 종합의 이치이다.[5] 오색이 무늬를 이룬다(五色成文), 음악은 소리의 문(樂, 聲之文), 오음이 모이면 소와 하의 음악을 이룰 수 있다(五音比而聲韶夏) 등, 이러한 조화는 서구의 수적조화와는 다른 중국적 조화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식(飾)으로서의 문은 질의 발현이며, 질을 기반으로 하여 만물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파악한다. 그런 점에서 장파는 문의 두 번째 특징으로 규정성을 든다. 원시인이 몸을 치장하는 모든 장식은 토템의식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경사대부가

---

2) 《周易, 繫辭傳》
3) 章炳麟, 《國故論衡》, <文學總略>, 張法/유중하 외,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中西美學與文化精神)》, 푸른숲, 1999, 281쪽에서 재인용.
4) 《周易, 繫辭傳》
5) 張法/유중하 외,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中西美學與文化精神)》, 푸른숲, 1999, 282쪽.

옷을 입고 관을 쓰며 그들 마차를 끄는 말의 숫자, 인간관계의 양태 등이 모두 예(禮)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색.소리.음식.주거의 배치와 비례도 예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 바로 이런 규정성으로 인해 중국의 문은 애초부터 사회.정치.윤리적 성격이 농후함을 장파는 강조하고 있다. 절중(折中), 시중(時中)등 중국의 조화의식 중(中)의로의 피드백, 장파는 다양성의 통일, 그 조화여부도 물론 중에 의해서 규정됨을 설명한다. 조화는 만물 자체(五色.五音.五味)의 배합이고, 중은 사물과 더 높은 차원(소리와 마음, 인간과 사회.자연) 간의 조화를 강조한다. 중은 조화의 핵심이며 중이 조화를 지배한다.[6] 이 조화는 혁(革)조차 일정한 질서, 중의 질서 속으로 수렴해간다. 여기서 화(化)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는 革, 변역(變易)을 꾀하되, 그것을 일정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변화하게 하는 의미이다. 문화, 문으로의 변역은 중국천하질서 안에 수렴되는 것을 필연으로하는 도덕적 완정성의 구현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화이관계의 원리인 문명교화, 인문교화는 그 극명한 표현이 된다.

2. 음악과 정치

옛날 염제 신농(炎帝 神農)씨가 중국천하를 다스리던 시절. 천지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 양기(陽氣)가 쌓일 대로 쌓이니, 만물이 흩어져 떨어지고 도무지 과실이 여물지 않았다. 그래서 사달(史達)이라는 사람이 다섯 현의 비파를 만들어 연주하자, 음기(陰氣)가 도래, 모든 생물이 안정을 되찾고 잘 자라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 중국 성인정치의 표본인 요(堯)임금이 즉위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일이다. 세상에 음기가 너무 많아 모든 것이 제대로 통하지 못하여 괴고 쌓이니, 물길이 막혀 홍수가 나고 그로 인한 재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몸의 근육과 골격까지 위축되어 잘 자라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요임금은 질(質)에게 명하여 음악을 만들게 하니, 질은 산림 속에서 나는 바람소리나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같은 소리를 얻어 가곡을 만들었고, 다시 사슴가죽을 장군(缶, 액체를 담는 그릇의 일종)에 붙여 북을 만들었으며, 또 손으로 돌을 쳐서 맞추어 상제에게 제사지낼 때 쓰는 경쇠(磬) 소리와 같게 하니, 그 소리를 듣고 온갖 짐승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도 즐기게 되었다. 요임금은 춤과 음악을 만들어 사람들이 흥겹게 즐기게 함으로써 침체되고 위축된 것을 형통하게 하였던 것이다. (《呂氏春秋》)

이 이야기는 중국음악이 오랜 세월을 걸쳐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정치이상, 곧 성인정치의 경지가 음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배계급의 통치논리가 음악의 발생과 전개에 관철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런 점에서 중국에서 음악과 정치, 혹은 문화와 정치의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象曰 天地交泰 后以 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

后(후) : 천상(天上)의 제(帝)에 대하여 지상의 통치자(제후를 포함)

財成(재성) : 재성(裁成). 재단하여 이룸.

輔相(보상) : 도우다. 左右(좌우) : 인도하다.

상(象)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화합하여 태평하다. 왕자는 이 괘(卦)를 보고(后以) 천지의 도(道)에 천지(사람)의 마땅(正義)함을 보태어 대성하게 하고 인민을 (태평하게) 인도하여야 한다. 태괘(泰卦)는 주역 64괘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괘. 하늘의 마음과 땅의 마음이 서로 화합하여 서로 교통(交通)하는 괘다.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모양은 물론 자연스럽지

6) 張法, 앞의 책 282-283 쪽.

않다. 자연의 형상과 역전된 모양새, 그러나 바로 이 점이 태화(泰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하늘의 기운은 위로 향하고 땅의 기운은 아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만난다는 이치이다. 서로 다가가는 마음. 동중서는 이러한 태괘의 형상으로 천인합일론을 도출해내고, 유교를 중국봉건통치이념으로 건구해놓았다.

3. 화이관계와 문화

1) 夷夏관념의 역사적 원류

萬族蒸蒸, 이것은 중국의 고대에 있어서의 夷夏관념을 잘 말해준다.

고고학 연구는 중국의 고대 문명이 다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황하 中流지역에 앙소문화, 하류지역에 靑蓮崗문화, 장강 중 하류지역의 河姆渡문화같은 것이 그 예이며 이러한 문화의 유적들은 중화민족의 선인들이 문명의 曙光시기에 서로 다른 특색의 문화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문명의 이러한 다원적인 발전은 역사에서 점차적으로 서로 이질적인 원시공동체를 만들었다. 史書에 "萬國"이라는 말이 있었으며『春秋左傳正義』(제 58권)에 "禹가 제후들을 塗山에서 회합하여 옥과 비단을 萬國으로부터 거두어 들였다"라는 말이 있다.『주례』에도 "司彛", "八蠻"의 설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춘추시대에는 夷, 蠻, 戎, 적(狄)등의 명칭이 존재하였으며 그때는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었다. 예를 들면 狄은 강건한 사슴을 상징하는 것이며 북방의 수렵민족을 대표한다. 戎은 병기를 말하며 서방민족이 성품이 용감하고 병기에 능함을 말하는 것이며 蠻은『시경』에서 원래 작은 새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산해경』에서 "崇吾之山有鳥焉 …… 相偶而飛"라고 했는데 蠻을 가리키는 것이다.『사기』에도 이와 비슷한 문구가 있다. 이와 같이 선진시기에는 오랑캐들에 대한 멸시의 의미가 없었다.

2) 중국의 의미

중국대륙에서 각 민족들은 서로 왕래하고, 배웠으며 또한 전쟁을 하였다. 전쟁에서 이긴 마을은 문명발전의 기회가 더 많았고 치우와 염제를 몰락시킨 黃帝의 부락은 황하의 중 하류지역에 가장 선진적인 문화를 탄생시켰으며 이러함 문명이 포괄하는 지역은 점차 中國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최초의 中國이라는 단어는 서주초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1963년 섬서성 寶鷄지방에서 출토된 銘文은 이러한 논거를 입증해 준다.《시경》에 나타난 "중국"의 의미는 지리적인 개념의 중국이었으며 지역을 의미하였다.《맹자》에서 齊의 선왕이 말하는 "중국"의 의미는 천하의 中 혹은 국가의 都城이라는 의미였고 역시 지리적인 개념의 중국이었다. 그러나 경제문화의 발전은 중국이라는 의미에 문화적인 색채를 가미시켰으며《좌전》에 "德以柔中國, 刑以威四夷"라는 말이 있는데 지리상의 개념이 아니라 가치적인 판단에서 "중국"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날이 갈수록 더 농후해 진다.《사기》(권 四十三)에 나타난 "중국"의 의미는 "冠帶之室"의 의미이며"華夏"라는 아름다운 말도 있다. 공영달은 공자의 "裔不謀夏, 夷不亂華"를 註解하면서 말하기를 "중국이 예의의 성대함이 있기에 夏라고 부르며 의복과 文章의 아름다움이 있기에 華라고 부른다"(《좌전》)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인들이 화하민족이라 함은 진실로 발전된 문명을 가진 민족을 말하는 것이며 송유의 한사람인 陳亮이 말하는 "천명의 사랑이며,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곳이며, 衣冠禮樂이 집결한 곳"이다. 역사에서 "중국"과 "화하"는 같은 의미이며 문화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 夷狄과 禽獸

《예기.王制》에서 "……하늘은 추위 더위가 있고 땅은 마름과 습함이 있으며 넓은 골짜기와 큰 개울은 서로 다르게 만들어 졌다. 사람들이 그 가운데 거함에 풍속을 달리한다. 강함과 유약함에 경중이 있고 빠르고 느림에 고르지 않다. 五味는 서로 달리 화해롭고, 기물과 기구는 서로 달리 만들어지고 복장도 달리한다. 중국과 夷狄, 五方의 백성들은 모두가 性이 있으며 바뀌지 않는다. 동방을 夷라고 하며 문신이 행해지고 火食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남방을 蠻이라고 하며 발톱을 치장한다. 서방을 戎이라고 하며 가죽옷을 입으며 낟알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북방을 狄이라고 하며 새털 옷을 입고 동굴에 거처한다.…… 모두가 안식처, 화해로운 맛, 편안한 복장, 利用, 備器가 있다. 언어가 다르고 기호와 욕구가 다르다"(《좌전.양공 十四年》)라고 하고 있다.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풍습, 서로 다른 언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의식주방면에서의 차이는 표면적인 것이어서 크게 차별을 느끼지 않으나 문명정도의 차이는 그 차별성을 초래하다. 중국은 詩書禮樂의 제도가 있어 정치를 행하나 오랑캐는 그런 제도가 없어 구별이 된다. 외형에서는 비슷하나 문화와 경제적인 낙후성때문에 그들을 모독하여 禽獸로 분류한다. 본래는 사해의 안에서 생활하는 민족이었으나 화하는 먼저 발전하고 夷狄은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문명의 성취가 과분한 민족의식과 대한족주의를 발생시켰고 종족멸시의 정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멸시는 혈통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4) 尊王攘夷

夷狄이 禽獸라는 판단과 현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충돌은 尊王攘夷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 인구의 증가와 활동범위의 확장은 민족간의 모순과 충돌을 야기시켰다. 주나라의 선조였던 古公亶父는 융적의 침략을 받아 기산의 아래에 몰려지게 되었고, 幽王은 犬戎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춘추전국시기에 중국은 끊임없이 남이와 북적의 침략을 받았고 五胡의 난과 금이 송을 멸망시킨 대규모의 민족 간의 전쟁이 있었다. 서주 말기 관중이 "존왕양이"의 구호를 들고 초를 정벌하였으며 남만의 위협을 없앴다. 역사적인 시각에서 "존왕양이"는 정치와 문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그 한가지가 이적의 침입을 막고 중국을 수호하는 것이며 다른 한가지가 끊임없는 중화문명의 발전이 "존왕양이"와 함께 倒退되지 않은 것이다. 옛 중국의 선인들은 오랑캐가 夏로 오는 것을 제창하였다. 맹자는 "나는 夏로서 夷를 변화시키는 것을 봤어도 夷로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으며 "用夏變夷"는 "존왕양이"의 종국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夷夏의 우호적인 相處

각 민족 간의 충돌이 없어지면 우호적인 왕래가 주류를 이루었다. 공자는 이적에 대한 무력의 정복을 반대하였으며 "文德"을 제창하였으며 "멀리 있는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면 文德을 수양하여 부르고, 오면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다. 《예기》에 "가르침을 배우고 풍속을 바꾸지 않는다. 정치를 바르게 하며 그 편이함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환경과 경제적인 발전수준에서의 차이는 문명의 우열을 가져왔고 선인들은 이하관계를 인식함에 있어 멸시적인 태도가 섞여있었고 경멸하고 심지어 증오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이익의 충돌 때문이었고 혈통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文德以來之"로 夷를 온화하게 대할 것을 주장하며 夷를 夏로 변화시켜 "中國"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와 같이 중국전통문화의 夷夏관념

은 개방적인 것이었다.

6) 夷夏之間

청말 사상가 왕부지는 夷夏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① 夷夏는 그 경계를 나눈다.

왕부지는 이하가 서로 다른 객관적인 원인은 서로가 처한 자연환경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땅이 크고 구주는 서로 다른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조건의 현저한 차이는 사람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夷狄은 화하에 대해 생소하며 地, 氣가 다르며 氣가 다르면 관습이 달라지고 관습이 다르면 알고 행함에 다르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은《예기》의 地異而人異라는 사상에서 온 것이다.

② "有文"과 "不備文"

상고시대 중국은 야만인의 상태에 있었지만 신속히 문명사회로 진입하였고 이하간의 차이가 급격해 졌고 따라서 관습의 차이가 커졌다. 근본적인 차이는 문의 구비에 있었다. 왕부지의 저술에서 "有文"은 禮樂典章의 제도와 풍부한 물질생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人極은 개념상에서 사람의 행위가 가장 인상이 깊고 내재적인 확정성과 담보를 말한다. 極은《주역외전》에 나와 있는데 근본적인 사람의 "道"이다. 소삽부(簫箑父)는 人極은 인류의 문명을 문명케 하여 문명한 인류의 본질적인 특징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중국"의 "문"이다. 이것과 상대가 되는 것이 이적의 "文不備"이며 이적은 그 문을 갖출 수 없다. "文不備"는 禽獸의 "無文"과 비교가 된다. 문명의 발전수준에 있어서 "문불비", "무문"은 夏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그 첫째가 예악제도의 결핍이며 둘째가 문자의 不行이다. 문자를 구비하지 못하면 점차 無文하게 되어 아는 것이 없게 되며, 전할 것이 없게 되며, 시비의 항상성이 없게 되고 취하고 버림에 근거가 없게 되고 굶주리면 배를 곯고 배부르면 남는 것을 버리며 단지 걸어다니는 禽獸일 뿐이다. 이런 것이 문명에 따른 "文不備"의 구별이다.

③ 夷夏의 大防

왕부지는 華夏가 이적과 다른 것은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진 데서 온 것이며 밭고랑의 길로부터 이적과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명은 無文(禽獸) → 文不備(夷狄) → 有文(中國)의 순서로 진화되었다. 夷夏의 차이는 일반적인 차이가 아니며 엄격하게 大防이다. 만일 이하간의 경계를 문란하게 하면 그 결과는 엄중한 것이다. 일찍이 防을 쌓아서 인극(人極)을 규정하여 사람들의 생육을 보호하는 것은 하늘을 따르는 것이다. 화하와 이적은 군자와 소인이다. 왕부지의 이러한 주장은 이하의 차이가 문명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선현들의 입장을 계승하여 無文 → 有文의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적이 금수라는 학자들의 논란에 반대하며 부지가 말하는 "모두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주의를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④ 타인이 나를 해하지 않으면 나도 타인을 속이지 않는다.

夷夏는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한 생물이며 자기의 고유한 지리적 조건을 버릴 수 없다. 동식물은 자기들이 적합한 곳에서 살게 되어 있으며 또한 사람은 자기가 습관화된 환경을 떠날 수 없으며 자연 지리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법칙을 위반하면 곧 실패한다. 습관은 환경의 산물이며 사람은 그 환경을 떠날 수 없다. 자기의 곳이 아닌 곳에 마음대로 들어가 거주하면 땅에 적합하지 않고 하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며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다.

이러한 왕부지의 地理決定論은 이적이 중원을 어지럽힘을 경고하려는 데 있으며 침략자에

대하여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道로서 이적을 대하는 것을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공정한 것이며 유가의 인애사상의 표현이다.

한 나라의 군주가 자기나라를 보호할 수 없으면 인민이 그를 몰아낼 수 있으며 절대로 이적이 주인이 되지 말아야한다. 찬탈도 이적이 중국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다. 송의 악비가 찬탈하는 것이 진회가 신하국으로 굴복하여 뇌물을 상납하는 것 보다 훨씬 낳은 것이다.

멀리의 이적도 冠帶(옛 벼슬아치의 公服)의 윤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천지의 덕으로서 人極을 세워야 한다. 군신부자의 윤리와 시서예악의 교화를 성인은 마다하지 않으며 이적은 중화의 선진문명을 향유할 수 있다.

⑤ 西夷(서방인)는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왕부지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중국이름 利瑪竇, 이탈리아 천주교 예수회 선교사, 明왕조 萬曆년간에 중국에 왔다)를 비롯한 이탈리아 선교사들의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에 반박하여 혼천설渾天設을 주장하였다. “혼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지는 계란과 같으며 땅은 하늘의 중간에 있어 노른자위와 같다. 노른 것은 무겁고 탁하고 흰 것은 가볍고 맑지만 흰 것은 노른 것을 담아서 한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뿐이며, 땅이 노른자위와 같으며 둥글기가 탄환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적은 지혜로서 牽强附會시킨 것이며 사람은 지구밖에 서 있을 수 없기에 지구를 완전하게 볼 수 없다. …… 그러나 마테오 리치는 두 가지의 儀器(측정기구)를 하나의 탄환으로 규정 지우며 이것은 누추한 행위이다.……”라고 한다. 왕부지의 이러한 비판은 중국중심주의와 문화주의에 입각한 것으로서 당시 중국지식인들의 사고를 반영한다.

왕부지는 扶長中夏를 주장하였다.

중국의 “有文”은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것이며 그 본질인 “人極”의 가치는 반드시 “扶長中夏”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인류의 최상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그 문명의 성취는 어렵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문명 중에서 중국의 문명만이 長盛不衰하게 되었으며 문화적 전통을 이루었다. “中夏”는 扶持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중국이야말로 이적과 비교할 수 없는 문명사를 가지고 있다.

“扶長中夏”의 “中夏”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중국영토 내의 한족위주의 봉건정부, 즉 명왕조를 말하며 허의 적인 의미에서 華夏의 문명을 가리킨다. 허의 적인 의미 즉 시서 예악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왕부지는 만년에 청의 관리로부터 좁쌀을 받았다. 이로부터 그의 입장이 이적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扶長”의 핵심은 폭력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관심과 중시이며 화하문명이 맥을 잇지 못하고 타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왕부지가 사상적 심혈을 기울인 氣學 또한 그것이 제기된 역사적 시점으로부터 위의 문제와 더불어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고염무, 황종희와 더불어 청대 3대 사상적 맥을 이루는 왕부지의 작업은 노장사상과 양명학의 심학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유학의 체계를 다시 잡아나가는 과정의 산물이지만, 그역시 중국식 천하관의 재편을 위한 관념론체계의 재구성에 집착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변혁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무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봉건시기 최후의 문화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왕부지의 사상사의 재편노력은 위의 부장중화의 우월한 위상에서 스러져가는 종법질서의 강화유지를 통해 중국의 천하질서를 재구축하는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한 궤를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